

2-1 국제통화제도

교재: 외환론, 최생림 p3-31

국제외환금융론, 김철, p61-92

국제기구, 국제통화기금,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1. 국제통화제도

1) 의의

국제간 재화와 자본의 이동에 따른 화폐의 지불을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결제의 체계

2) 국제통화제도의 목표

국제무역의 확대를 통하여 국제무역의 최적활동을 계속적으로 도모하며 각국의 국제수지균형과 국내균형을 확대달성

IMF 협정 제1조

3) 국제통화제도의 기능

국제유동성의 공급기능

국제수지의 조정기능

4) 국제통화 International Currency

국제통화란 국제간의 결제에 자유롭게 통용될 수 있는 통화를 의미

교환성과 이체성, 안정성, 해당통화국내에 외환금융시장 발달

고대-1930년대 금본위제 붕괴: 금

1차세계대전 전: 영국 파운드

2차대전 이후: 미국 달러

1970년대 이후: 독일 마르크, 스위스 프랑, 일본엔 준기축통화

SDR(Special Drawing Rights) IMF가 1970년 1월1일 기축통화의 신인도 저하 문제해소 위해 창출한 특별인출권

5) 국제금융시스템의 역사

1821-1914 금본위제

1925-1931:금환본위제

1946-1971:브레턴우즈체제

1973년 이후:변동환율제도

플라자합의 1985

마스트리히트 조약 1991

멕시코 폐소화 폭락 1994

WTO체제 출범 1995

아시아 금융위기 1997

유로화 출범 1999

유로화 국제통용 2003

(1) 금본위제도 (1821-1914)

역사상 최초의 금본위제도는 영국에서 성립

- 1816년의 주조법(Coinage Act of 1816)
- 1821년 영란은행 정화지불 시작
- 1871년 독일이 금본위제로 이행
- 1873년 미국
- 1875년 네델란드
- 1878년 프랑스
- 1897년 일본

화폐 한 단위의 가치가 일정량의 금 가치에 결부되어 있는 화폐제도.

화폐 한 단위의 가치가 일정량의 금 가치에 결부되어 있는 화폐제도. 이 경우 화폐가치는 금가치에 의해 제약되며 금 가치를 규정한다. 따라서 화폐 한 단위와 금 일정량과의 등가관계(等價關係)가 어긋나게 되면 금은 화폐로 또는 화폐는 금으로 전환하게 되고 이 전환을 통해 화폐수량은 증감한다. 이리하여 화폐의 가치는 일정량의 금의 가치에 접근되는데, 이 화폐 한 단위와 금 일정량과의 등가관계가 유지 가능한 것은 화폐와 금과의 자유로운 상호 전환, 즉 금화 주조의 자유와 은행권태환의 자유, 금수출입의 자유를 통해서만 보증된다. 그러므로 금본위제도를 존속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금준비를 필요로 하며 만일 금준비가 고갈 되면 자유전환은 인정할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을 금본위제정지 또는 붕괴라 한다. 금본위제도는 그 구체적인 법제와 운용의 실제에 있어서 몇 가지로 나뉜다. 즉 금화가 주조되어 그것으로 태환(兌換)이 보증되는 금화본위제도(gold coin standard)와 금화 대신 금괴로의 태환에 응하는 금괴본위제도(gold bullion standard)가 있으며, 또 다른 금본위제도에 대해 발

행된 금환 또는 그로부터 발행된 금환을 일정한 시세로 매매하는 것을 수단으로 국내화폐의 1단위와 금 일정량과의 사이에 등가관계를 확보하려는 금환본위제도(gold exchange standard)가 있다. 금피본위제도와 금환본위제도는 금이 핵심으로서만 존재하고 국내에는 유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핵본위제도(金核本位制度 ; Goldkernwährung)라고도 한다. 금본위제도가 가장 전형적으로 행해진 것은 영국이었다. 1816년까지도 프랑스는 복본위제도(複本位制度)를 취했고, 그밖의 나라에서는 은본위를 취했으나 당시 금에 대한 은의 심한 가치하락과 프랑스의 세력 약화로 1873년에는 독일·네덜란드·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가 은본위로부터 금본위로 이행하여 이해부터 금본위제도는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미국 또한 1874년에 금본위제도를 채용했고 일본도 1897년에 금본위제도를 확립함으로써, 20세기 초에는 세계 주요국이 거의 금본위제도를 채용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이 금본위제도가 세계적으로 채용된 것은 궁극적으로는 금이 상품화폐로서 가장 알맞은 데에 이유가 있으나 직접적으로는 당시 세계 최선진국으로서의 영국 화폐제도가 이미 금본위제도였고 그밖의 나라는 통상상·국제금융상의 이유에서 영국의 화폐제도에 따라야 했기 때문인데, 다만 이를 실현하는 계기는 18세기 말 은의 가치하락과 금은비가(金銀比價)의 변동이었다. 이 금본위제도는 제1차세계대전 때 일단 정지되었다가 제1차세계대전 뒤 자본주의의 상대적 안정에 따라 변모된 형태로 재건되었으나 1929년의 대공황 때 다시 무너졌다. 그 뒤로는 미국이 극히 제한된 금지금본위제도(金地金本位制度)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2) 금환본위제도

다른 금본위국 특히 국제금융의 중심지에 대한 환(금환 또는 거기에서 발행된 환)을 일정한 시세로 매매함으로써 자국화폐를 금가치와의 평가, 즉 자국화폐 1단위와 금 일정량과의 사이에 등가관계를 유지하려는 화폐제도이다. 금환본위에 있는 나라는 자국이 보유하는 금이나 금환을 금본위국의 환은행에 결제자금으로 예치하여 대외지불의 요구에는 해당은행 앞의 금환을 법정시세로 수도하고, 대외수취의 경우에는 반대로 당해은행 앞의 금환을 법정시세로 매상하여 이것을 환결제자금으로 돌린다. 금환본위제도는 국내에서는 금을 본위화폐로 사용하지 않는 나라, 또는 금의 부족으로 금을 통화준비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대외적으로는 금본위제에 속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나타내는 데 이용된다. 이 제도는 1893년 영국에 대한 국제대차상의 채무국이었던 인도에서 최초로 채용되었다. 즉 은본위제를 채용하였던 인도는 은값의 하락으로 화폐 유통질서에 심한 왜곡을 가져온 데다 영국에 지불해야 할 금화 채무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자 금본위제로 이행하려는 과도적 방책으로 1920년에 이르기까지 20여 년 간 이 제도를 행하였고 그 뒤로는 필리핀을 비롯하여 파나마공화국·멕시코 및 그 밖의 은본위제 나라가 인도에 뒤따랐다. 이 제도는 이같이 은본위국인 식민지 또는 약소국이 금본위국 상대의 금환을 매매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이 제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본위국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재외정화(在外正貨)의 관리에 의해 환시세를 안정시키는 것으로 채용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1931년에 영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한 나라가 금본위제로부터 이탈함에 따라 세력이 약화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2) 브레턴우즈협정

현대의 국제통화제도와 국제금융의 기본이 된 제도와 관행은 제2차세계대전 종료시부터 시작

1944년 7월 22일 미국의 브레턴우즈에서 연합국 44개국 대표들이 모여 개최한 연합국통화금융회의에서 체결한 협정.

고정환율제도와 금에의한 국제결제제도 채택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GATT설립 합의

미국 중앙은행은 금1온스당 35달러에 거래기로 합의

1968년 3월: 미국은 금의 시장가격 개입 포기

1970년 SDR창출

1971년 8월 달러의 금태환 정지

1971년 12월 스미소니언협정, 달러화 절하, 금의 공공부문 거래가격 1온스당 38달러, 평가의 상하 2.25%

1973년 2월 미국 달러의 10% 평가절하

1944년 7월 22일 미국의 브레턴우즈에서 연합국 44개국 대표들이 모여 개최한 연합국통화금융회의에서 체결한 협정. 1945년 12월에 발효되었다. 정식명칭은 연합국통화금융최종의정서이다. 연합국은 이 협정에서 은(銀)문제, 국제결제은행의 청산, 적국재산과 피탈재산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협정조문과 국제부흥개발은행(세계은행) 협정조문이다. 보통 브레턴우즈협정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 2가지 협정을 가리킨다. 이것은 제2차세계대전 후에 국제통화금융의 운영에 관한 방침을 정한 것이며, 이러한 체제를 브레턴우즈체제(기구)라고 한다. 이 협정이 성립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기구안이 제안되었다. 그 중 IMF에 대해서는 미국의 화이트안과 영국의 케인스안이 대립하였으나, 토의 끝에 화이트안을 골자로 하게 되었다. 브레턴우즈체제의 기본적인 목표는 국제협력을 강력히 추진하여 세계경제의 확대·균형을 실현하자는 것인데, 그러한 요청은 전쟁 전 특히 1930년대에 대한 반성에서 생긴 것이다. 즉 1930년대에는 세계적인 대공황에다 경쟁적인 평가절하와 수입제한이 잇따르고 폐쇄적인 블록경제권이 각지에서 생겨 제2차세계대전을 유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자유·무차별·다각적인 세계무역체제를 만들기 위하여 무역·외환상의 제한 철폐, 환율안정, 경제부흥개발의 촉진이 강조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통화금융기관인 IMF와 세계은행이 설립되었다. 그 뒤 무역기관으로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성립되고, 세계은행을 보강하는 기관으로 국제금융공사와 국제개발협회가 연달아 설립되었다.

4) 변동환율제도(1973년 이후)

외국환시장에서 수요·공급 상태에 따라 환율을 변동시키는 제도. 고정환율제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이 변동환율제는 자유변동환율제(clean float)와 관리변동환율제(관리 플로트)로 나뉘어진다. 자유변동환율제는 환율의 움직임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제도이며 통화당국은 외국환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관리변동환율제는 환율이 심하게 오르내릴 때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역사적으로 환율이 무질서하게 변동한 시기는 제1차세계대전 후부터 금본위 복귀까지와, 1930년대의 금본위 붕괴 후, 그리고 1970년대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변동환율제가 제도로서 인정된 것은 1976년 이후이다. 같은 해 자메이카의 킹스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잠정위원회는 각국이 고정환율제이든 변동환율제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하여 변동환율제가 제도로서 정식으로 인정되었으며, 그 이후 총플로트 시대가 되었다. 그때까지 변동환율제는 제도로서가 아니라, 고정환율제 붕괴에 의하여 생긴 무질서한 것이었다. 변동환율제에 기대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환율의 변동에 의하여 국제수지의 균형을 달성하는 일이다. 현재 국제수지가 적자로 되면, 외국환시장에서는 외화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웃돌게 되며, 환율은 외화고(外貨高)가 된다. 이와 같은 환율의 변화는 한편에서는 수출가격을 내리게 하므로 수출을 증가시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수입가격을 올리게 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국제수지적자를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변동환율제로 이행하면 환리스크가 증대하기 때문에 금리 재정(裁定)이나 환투기 등의 단기적인 국제자금의 이동이 어렵게 된다. 이들 기능이 발휘되면 각국은 재정금융정책을 써서 국내균형대책에 기여할 수 있고 정책운영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 결과 외화 절약이나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의 국제적 파급을 차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적 경험으로서, 국제수지의 조정에는 시간이 걸리며 국제자본의 이동은 반대로 활발해져서, 그 결과 환율의 변동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대폭적인 것이 되고 각국의 정책은 그것 때문에 구속된다. 또한, 인플레이션도 억제력을 잃고 조장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기대와는 반대로 세계경제를 불안정하게 이끌게 된다. 앞으로는 주요 국가들의 합의에 의하여 협조적 개입체제를 이루어 외환의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요망된다.

가. 플라자합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 5개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따른 세계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85년 9월 22일 뉴욕 플라자호텔에 모여 도출한 합의.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하고 이것이 순조롭지 못할 때에는 정부간의 협조·개입으로 인위적으로 환율 조정에 나선다는 내용.

1985년 9월 22일 G 5 (선진 5 개국 재무장관회의) 가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외환시장개입에 의한 달러화 강세시정을 결의하였는데 이를 플라자 합의라고 한다. 이 합의로 당시 1 달러당 (월평균) 260

엔 대를 보이던 달러화는 약세로 반전, 1987년 말에는 달러당 123.33 엔까지 평가 절하되었다

나. 마스트리히트조약

유럽의 정치와 경제 및 통화 통합을 위한 유럽통합조약.

유럽의 정치와 경제 및 통화 통합을 위한 유럽통합조약.

1991년 12월 11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열린 유럽공동체(EU) 12개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다. 내용은 유럽통화통합에 관한 일정, 유럽중앙은행 설립, 서유럽연맹(WEU)을 주축으로 한 조사정책 수행, 유럽의회에 EC조약 개정·승인권 부여, 유럽시민권 도입 등이다. 1958년 성립된 EC가 통화통합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베르너보고를 실행에 옮긴 1971년부터이다. 1979년 유럽통화제도(EMS)가 발족되면서 새로이 에쿠(ECU)가 도입되었으나 환율조정기구(ERM)는 기본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

1990년 7월부터 들로르보고에 바탕을 둔 통화통합 실현을 위한 3단계 계획이 실시되었다. 이 계획의 완전한 시행 및 단일 유럽의정서를 통한 정치적 협력을 공동체의 목표에 포함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약의 개정과 비준을 제1단계에서 성사시킬 것이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 12월 9~10일 EC정상들이 마스트리히트에서 기본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서 합의된 것이 마스트리히트조약이며 1992년 2월 7일 조인되었다. 역내 협력을 정치분야로까지 확대했다는 의미에서 EC는 경제통화동맹(EMU)을 넘어서 유럽연합(EU)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중요한 특징은 통화동맹결성의 목표를 로마조약(EC설립조약)에 명시했다는 점과 일정표가 빠진 들로르보고의 단계적 접근방법에 시한을 덧붙임으로써 계획의 연기나 후퇴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점에 있다. 즉 1994년 1월로 명시된 제2단계 이행과정에 유럽중앙은행의 전신으로서 유럽통화기구(EMI)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기관에 경제통화주권의 이양이 이루어지는 제3단계 이행을 위해 협정에서는 각국의 경제실행 정비를 필수조건으로 들며, 그 정비상황을 가늠하는 4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3단계 이행에 관해 EC위원회와 EMI는 재무장관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즉 ① 중앙은행의 독립성 등에 관한 각국의 국내법 규정이 조약과 모순되는지 여부 ② 각국의 경제가 정비판단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해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재무장관이사회는 1996년 말까지 적격국이 과반수를 넘는지 판단하여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1997년 1월부터 제3단계 이행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조약에 의하면 적격국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도 적격국은 1999년 1월에는 제3단계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11개국에서 예정대로 통화통합이 이루어졌다. 조약은 1993년 11월 발효되었다. 종래 EC 위원회는 조약의 발효와 함께 유럽위원회로 불리게 되었다.

다. 멕시코 페소화 폭락

1982년 8월에 불어닥친 멕시코의 금융위기를 의미한다. 800억 달러가 넘는 대외채무, 연간 100%에 가까운 인플레이션, 환율의 폭락, 전면적 외환관리의 도입, 민간은행의 국유화 등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가폭락에 있었으나, 공공부문의 비능률, 재정적자의 급증, 국제금리의 상승에 따른 금리 부담 증가, 농업정책으로 인한 식량수입 증가 등의 누적된 요인들도 함께 작용했다. 막대한 외국차관도입에 따른 채무변제로 국제수지는 점점 악화되어 1995년 말 대외채무총액은 1611억 달러였다. 한편 멕시코는 1965년부터 미국접경지대에 보세가공산업단지인 마킬라를 육성해 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모색하였다. 1982년 경제위기 이후 수입대체전략에서 수출진흥전략으로 돌아섰다.

1986년 GATT에 가입하고, 1992년 10월 미국·캐나다·멕시코가 참여하는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이 타결, 1994년 1월 발효돼 무역량이 증가했다. 아시아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면서 1993년 APEC에 가입했으며 1994년 3월 중남미국가로는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NAFTA 출범 이후 정치불안·농민반란·암살사건·마약범죄증가·페소화 하락 등으로 경제가 불안했다. 페소화는 평가절하와 변동환율제실시로 인하여 외국투자자들이 자산을 인출하면서 1994년 12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1/3 수준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IMF 구제금융지원을 요청, IMF의 권고에 따라 환율을 완전자유화하고 부가세를 50%나 인상했으며 엄격한 긴축정책 속에 국영기업들의 민영화 및 은행부실의 과감한 제거정책을 폈다. 그 결과 GDP성장률이 1994년 -18.5%에서 1995~1997년 6~7%의 성장을 이룩했으나 1998년 아시아금융위기의 여파로 또 한차례 타격을 입었다. PRI의 오랜 일당통치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관리들의 부패,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하락으로 사회불안이 가중됐다. 2000년 3월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2001년에는 미국의 경기침체가 본격화한 데다 <9·11테러> 여파까지 겹쳐 멕시코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반전하였다. 2003년 미국 경제가 소폭 회복되자 멕시코 경제도 소폭 상승 하였다.

라. 세계무역기구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열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우루과이라운드 각료회의에서 설립된 세계무역추진 및 무역분쟁처리를 위한 기구.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열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 무역협상) 각료회의에서 설립된 세계무역추진 및 무역분쟁처리를 위한 기구. 약칭 WTO.

GATT를 대신하는 기구로 1995년 1월 발족했다.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지적재산권도 대상에 포함되며, 무역자유화 추진 및 그것을 위한 각종 규정의 강화, 무역·금융·재정 등에 관한 정책조정추진, 그리고 GATT에서 제한적으로 역할하던 <무역제한소> 기능의 강화 등을 임무로 한다. 그러나 환경규제에 소극적인 국가의 제품을 차별적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미국 등의 주장과 저임금에 맞서기 위해 노동조건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프랑스 등의 주장에 대해 개발도상국들이 반발하고 있어 노동

·환경문제 등과 같은 현안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1995년 10월 시작된 기본통신서비스협상은 1997년 2월 타결돼 1998년부터 각국 시장이 단계적 개방에 들어갔으며, 1997년 3월 정보통신부문의 관세철폐를 위한 정보기술협정이 한국 등 40개국의 서명으로 7월부터 발효됐다. 또한 12월 개발도상국 금융시장의 규제철폐 및 자유화를 위한 금융자유화협정이 5년만에 타결, 1999년부터 발효되었다.

조직으로 총회·각료회의·무역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으며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키구가 있다. 2003년 현재 회원국은 146개국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마. 파운드 위기

국제적 결제수단으로서의 영국 파운드화 시세가 국제통화기금 평가를 크게 밀돌아 평가절하된 상태.

국제적 결제수단으로서의 영국 파운드화(貨) 시세가 국제통화기금(IMF) 평가를 크게 밀돌아 평가절하된 상태. 파운드화는 제1차세계대전 전까지 국제통화로서의 지위를 보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1차세계대전으로 영국은 국력을 소모해 경제가 정체되었고, 1929년 시작된 세계대공황은 영국경제의 국제수지 불균형을 가져와 파운드화의 국제통화성을 동요시켰다. 제2차세계대전 후 파운드화는 국제통화성을 완전 상실해 영국 및 파운드화 지역에 심각한 혼란과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국제외환시장에서 투매(投賣)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1967년 11월 14.3% 평가절하를 포함, 제2차세계대전 후 10번 이상 파운드화 절하가 이루어졌다.

유럽통화위기

1992년 9월17일 통화가치 폭락에 직면한 영국의 파운드화와 이탈리아의 리라화가 유럽통화제도(EMS)의 환율조정체제(ERM)로부터 이탈함으로써 유럽 전역에 야기된 유럽금융시장의 극심한 혼란 현상.

유럽통화 위기의 일차적 원인은 독일의 고금리.

방대한 통일비용으로 인한 인플레이 압력을 막기 위해 독일이 고수하고 있는 고금리는 유럽의 돈을 흡수하고 각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유럽 전체의 고금리를 강제했으며, 유럽 각국은 이에 맞서 자국 통화 방어를 위해 연쇄적으로 금리를 인상시켜 그것이 유럽경제의 불황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거기에도 92년 6월 덴마크의 국민투표에서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이 부결된 데 이어 9월20일 있을 프랑스의 국민투표에서조차 조약비준이 위협받게 되자 유럽통합 전망이 불투명해짐으로 인해 빚어진 현상이다.

아시아통화위기

국제수지 악화, 외환준비고의 대폭적인 감소, 정치·경제적 불안 등에 따라 한 나라 통화의 대외가치에 불안이 일어나 투기가 발생, 당해 통화의 외환시세가 급격히 하락함과 더불어 대외지급준비가 다량으로 유출, 종래의 외환평가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95년 멕시코(페소화), 97년 태국(파트화)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일국의 통화위기는 주변국으로 전염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인

다.

예쁜 여자(뷰티 퀸)의 삶이 주위에 몰려드는 남자들 때문에 평탄하지않은 것처럼 ‘꿈의 시장’으로 여겨지던 동남아시아가 수많은 단기 자본 (남자)에 의해 경제·통화 위기를 겪게 됐다는 것. ‘미인은 팔자가 세다’는 말에 빗대 97년 중반부터 시작된 아시아 경제 통화 위기를 설명한다. 뷰티 퀸이 평탄한 삶을 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남자가 접근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 또 단기 자본을 도입하려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회계제도 확충,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차입이 아닌 투자를 통해 위험도 함께 부담하는

바. 유럽통화연맹

유럽연합(EU)소속 유럽국가들이 결성한 통화통합을 말한다. EMU라고 하면 흔히 1999년 1월초에 출범한 유럽 공통통화 유로화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통화통합 국가들을 지칭한다. 유럽의 경제통화통합은 195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실제 구체적인 통합작업이 시작된 것은 90년부터다. 유럽국가들은 89년 6월 경제통화통합에 관한 들로르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 보고서에 따라 90년 7월 경제통화통합의 제1단계에 들어갔다. 이듬해인 91년 12월에는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경제통화통합 계획을 반영한 유럽연합 (EU) 협정 초안을 담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됐고, 이 조약은 각국의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93년 11월에 발효됐다.

유럽 국가들은 이조약에 따라 94년 1월 경제통화통합의 제2단계에 들어 갔고, 2년 뒤인 99년 1월에는 유럽 공통통화인 유로화를 출범시키면서 경제통화통합의 마지막 단계인 제3단계에 들어섰다. 유로화의 도입은 유럽 경제통화통합의 마지막 완성단계로 볼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유로화의 출범으로 유럽 경제통화통합 또는 통화통합 체제(EMU)가 본격 개막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3단계 통화통합 작업은 2002년 6월까지 3년6개월간의 긴 전환기간을 설정해 놓고 이 기간에 개별 국가들의 통화를 유로화로 완전히 대체 하는 등의 추가 통합작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어, 실질적인 통합의 완성은 2002년 7월이후가 될 전망이다.

2.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

(1)고정환율제도 (Fixed Exchange Rate System)

환율변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그 변동 폭을 극히 제한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가장 전통적인 고정 환율 제도는 19세기말- 20세기 초의 금 본위제인데 동제도하에서 각국은 자국통화의 가치를 금에 고정시키고 금태환성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통화에 대한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제 2차 대전 이후 1973년까지 유지되었던 브레튼우즈 체제도 고정 환율제도의 한 형태로서 이 제도 하에서는 미 달러화 만이 금에 대해 가치가 고정되었고 금태환성이 보장되었다. 그리고 기타 국가는 미 달러화에 자국통화의 가치를 고정시켜서 운용 하였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경제활동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대외거래를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환율 변동에 의한 국제수지의 조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대외부문의 충격이 물가불안 등 국내경제를 불안정하게 하는 단점도 있다

고정환율제도의 종류

완전고정환율제도: 과거 금본위제도가 해당, 한 나라의 통화의 가치를 금 또는 특정 통화에 대한 평가로 표시하고 평가의 변경이 있기전까지는 평가로부터의 변동폭을 인정하지 않음

신축적고정환율제도: 브레튼우즈체제하에서 세계 주요국 통화의 달러에 대한 평가를 설정하고 동 평가의 상하1% 합계 2% 범위내에서 환율변동 인정, 스미소니언 체제하에서는 상하 극 2.25% 인정

크롤링페그제도: 평가의 소폭적 범위내에서 환율이 변동하나 평가자체를 시장실세 또는 국제수지 조정 목적등을 위해 소폭적으로 빈번히 변경시키는 제도

(2) 변동환율제 (變動換率制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각국의 통화가치를 고정시키지 않고 외환시장의 수급상태에 따라 자유로이 변동하도록 하는 제도.

1978년 4월 출범한 킹스톤 체제에서 IMF는 각국에 환율제도의 선택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변동환율제를 사실상 인정하였다.구체적으로 킹스톤체제는 가맹국이 자국이 채택할 환율제도를 IMF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세계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회원 85%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조정가능한 고정환율제 (stable but adjustable parvalue system)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변동환율제도의 장점

가. 외환시장에서의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므로 국제수지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내정책목표와 상치할 수 있는 가격 및 소득정책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나. 변동환율제도는 국제간에 이동하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파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게 되며, 따라서 대내정책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 국제수지의 조정책임이 국제수지 흑자국에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과도한 외환보유고가 필요없다.

변동환율제도의 단점

가. 환율변동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국제교역이 저하될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물가불안,경영상의 불안이 초래된다.

나. 물가와 환율이 매개변수적으로 변동하여 물가와 환율의 악순환적 변동을 초래하기 쉽다.

관리변동환율제도 (管理變動換率制度 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되도록 하되 중앙은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에서 환율

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시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수준을 관리하는 환율제도로서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장점을 살린 중간 형태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브레튼우즈 체제가 무너지면서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이후의 국제통화제도는 환율변동 허용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가 혼재되어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데 비해 개도국들은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변동환율제

외환의 수급상황에 따라 외환시장에서 자유로이 환율을 변동시키는 제도. 환율의 변동범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소폭의 범위 내에서 변동시키는 고정환율제도의 반대 개념이다. 또 변동환율제도 중에도 변동폭을 전혀 규제하지 않는 자유변동환율제도와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환율변동을 허용하는 제한적 변동환율제도가 있다

3. 국제통화기금IMF

국제연합 전문기관의 하나. 약칭 IMF.

국제연합 전문기관의 하나. 약칭 IMF. 1944년 7월에 조인되고 1945년 12월에 발효된 브레튼우즈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협력기관으로, 1947년 3월에 업무를 개시하였다. 브레튼우즈협정에 의해 설립된 자매기관인 국제부흥개발은행(세계은행)이 장기금융기관이라면 IMF는 단기 국제금융기관이다. 본부는 워싱턴에 있으며 총무회·이사회·전무이사과 직원으로 구성된다. 2005년 현재 회원국수는 184개국이다.

설립경과

IMF를 설립할 때 영국의 케인스안과 미국의 화이트안이 대립했다. 두 안이 모두 전쟁 후 국제금융의 안정과 원활화를 꾀하였으나, 케인스안이 세계적 중앙은행 설립을 피하는 <국제청산동맹안>인 데 반하여, 화이트안은 세계적 규모의 환안정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오랜 조정 끝에 화이트안을 기본으로, 케인스안이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목적과 기능

IMF는 세계경제의 확대균형, 가맹국의 소득수준 향상, 고용확대 등을 일반목적으로 하나 그 고유목적은 협정 제1조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제2차세계대전 전의 평가절하 경쟁의 쓰라린 경험에 비추어, 환시세의 안정을 들고 있다. 제4조는 이 취지를 계승하여 가맹국에게 환시세평가(금 또는 1944년 7월 1일 현재의 무게·순금분량을 갖는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각국의 통화가치)의 상하 1% 이내로 유지할 것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가맹국이 기초적인 불균형에 빠졌을 때에는 IMF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조정가능고정환율제라고 한다.

② 다각적 결제제도 확립을 위한 환제한철폐, 즉 환의 자유화이다. 가맹국 일반의무를 규정한 것이 제 8조인데 경상지불에 대한 환제한철폐, 차별적 통화조치철폐, 다른 외국보유 잔고에 대한 교환성 부여 등 3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의무를 수락이행하는 국가를 8조국이라 한다.

③ 가맹국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반면, 단기적으로 국제수지불균형에 빠졌을 경우 IMF로부터 외화자금공여의 편의, 즉 융자를 받게 된다. 자금원은 가맹국 출자에 의한 것인데 각국의 경제력에 따라 할당되며 그 25%를 금, 75%를 자국통화로 불입하게 되었다. IMF 융자의 최고한도는 출자액의 2배이며 이 범위 내에서 대출기준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실적

전쟁 후 과도기에는 미국 이외의 나라는 외화부족이 심각했으므로 잠정적으로 환관리가 인정되고 있었다(이러한 나라를 14조국이라 한다). 차츰 각국의 경제가 부흥함에 따라 무역·환의 자유화도 진행되어서 유럽의 주요 제국은 1958년 말에 통화의 교환성을 회복하고 1960년대 초에는 8조국으로 이행하여 IMF가 지향했던 자유화는 이 무렵에 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환시세는 1950년대에 평온한 추이를 보였으나, 1960년대에 와서 기축통화(基軸通貨)인 달러에 불안이 생기고 1960년대 후반에는 파운드·마르크·프랑 등의 평가변경이 잇따랐고 1971년 8월 달러의 금교환성(金交換性)이 정지되면서 1온스=35달러라는 금과 달러관계를 축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던 브레턴우즈체제는 무너졌다.

1971년 12월 스미스소니언협정으로 새로운 평가체계가 생겼다. 즉 미국 달러는 금 1온스당 35달러에서 38달러로 절하되었고, 각국 통화의 평가도 다각적으로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변동률이 2.25%로 확대된 이른바 스미스소니언체제인 고정환율제가 재건되었으나 1년도 못되어 무너졌다.

1973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대부분의 통화는 변동환율로 이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외화자금 공여목적에 대해서도 일단 성과를 거두었다. 자금총액은 당초 약 80억 달러, 그 중 교환성 있는 사용가능 통화는 금·달러·파운드를 합쳐도 약 절반에 불과하였으나 그후 교환가능통화의 증가와 정기적인 증가로써 융자능력이 확대되었다.

가맹국의 대부분은 국제수지가 어려울 때 IMF로부터 차입하여 위기를 벗어났던 일이 자주 있었다. 융자는 거의 달러가 차지했으나 그 달러가 1960년대부터 불안정하였으므로 IMF는 유사시에 선진 주요 10개국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는 협정을 맺고 나아가 새로운 국제유동성으로서 1970년부터 국제통화 조정대책으로 제3의 국제통화로 쓰이게 될 IMF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 SDR)을 창

출하였다.

협정의 개정

1970년대에 와서 IMF는 잇따라 협정을 개정해왔으나 그 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특별인출권(SDR)의 창출과 1976년의 킹스턴합의에 따른 개정이다. SDR는 금·달러에 버금하는 제3의 통화로 생각하고 창출된 것인데 기존의 IMF 용자처럼 출자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고 각국의 합의로써 금·달러를 보완하고자 창출된 준비자산이다.

각국에 대한 배분은 출자할당에 비례하여 행해지고 각국은 주로 수지잔액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참가국은 SDR를 수령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화폐처럼 국제간에 유통할 수 있고 무조건 인출할 수 있으므로 보유외화나 금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다. SDR는 통화성은 있으나 사용하는 데는 제한이 있고 반제의무도 있으므로 신용적 성격도 있다. SDR는 민간 거래나 시장개입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 현재로는, 외화 인환권에 불과하다. 1976년 1월 킹스턴에서 열린 IMF 20개국 잠정위원회는 변동환율제를 정식으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가맹국은 환율제에 관하여 고정제와 변동제의 선택이 자유롭게 되었으며, 금의 역할에서 저하방향이 제안되어 공정 금가격이 폐지되고 금출자의무도 없어졌다. IMF 보유금의 1/6은 출자국에 반제되었고 1/6은 시장에 매각하여 그 매상금을 원금으로 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을 촉진하게 되었다.

IMF는 설립 이래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과 함께 국제경제협력의 상호보완적인 역할로써 세계경제 발전에 공헌해 왔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 세계적 불황으로부터의 탈출, 환의 안정화, 개발도상국 누적채무의 심각화 등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

1990년대의 IMF활동

1990년대 접어들어 IMF는 러시아를 가맹국으로 맞아들여 1993~1995년에 걸쳐 약 113억 달러를 융자해 줌으로써 경제위기를 타개하도록 하였다. 1994~1995년에 발생한 멕시코의 폐소화(貨) 폭락에 따른 금융위기 때는 미국이 IMF와 BIS(국제결제은행)의 융자 등을 포함한 총 498억 달러의 지원책을 발표함으로써 큰 혼란에 빠지지 않는 않았으나, 국제간의 자본이동을 배경으로 하는 새로운 타입의 금융위기로 주목되었다.

1997년 중반부터 태국의 바트화 폭락사태를 계기로 아세안(ASEAN) 여러 나라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통화의 동요가 일어났다. 바트화의 폭락은 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인근 아세안 각국의 통화에도 혼란을 야기시켰다. IMF의 긴급금융지원을 받은 태국·인도네시아는 IMF와의 약속 이행조건으로 고강도 긴축정책을 펼쳐 경제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말레이시아·필리핀은 스스로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골자로 경제회복대책을 폈다.

한국과의 관계

한국은 1955년에 가입하였고, 1988년을 기해 지금까지의 IMF인출외채를 모두 상환했다. 그러나 1997년 11월 금융권 부실과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하여 지원받은 바 있다.

국가간의 통화 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국가간의 통화 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기의 제1차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는, 이른바 국제통화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 기간은 국제금본위제(國際金本位制)가 확립되어 있던 시대였으며, 영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조화있게 운영되어 중심국의 통화인 파운드는 안정되어 있었고 그 신뢰도는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제1차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영국 중심의 체제가 무너져 1930년대에는 국제금본위제도는 모습을 감추었다. 그 이후의 국제통화의 역사는 약간의 소강(小康) 기간을 제외하면 위기의 연속이었다. 제2차세계대전 후의 국제통화의 개관은 다음과 같다.

금·달러본위제의 성립(1950년대까지)

국제통화기금(IMF)이 발족된 당시는 국제통화의 세계적인 불균형으로 인해 달러 부족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국은 모두 환제한(換制限)의 철폐가 곤란한 상황에 있었으나, 미국만은 가능했으므로 달러가 유일한 국제통화로 되었다. 전후의 국제통화 체제는 형식적으로는 IMF가 중심이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달러가 기축(基軸)이 되어 운영되었다. 달러가 기축통화로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강대한 경제력의 뒷받침이 있었는데, 직접적으로는 그 때까지 축적된 거액의 금준비(金準備)에 의해서였다. 미국정부가 보유한 금준비고(金準備高)는 1949년에는 최고인 246억달러에 달했다. 미국정부는 1934년 이래 외국의 공적(公的) 기관이 보유한 달러에 대해서는 금 1온스당 35달러의 가격으로 교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금과 교환해 줄 것을 보증하고 있었다. 여러 외국정부들도 미국이 보유한 거액의 금준비에 안심하여, 금 대신 달러를 대외결제준비(對外決済準備)로서 보유했다. 이리하여 전후의 국제통화제도는 금과 달러가 양쪽 바퀴로 된 금·달러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달러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금과의 교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환(金換)이었으며, 그 밖의 나라들은 달러와 자국통화를 연결시키고 있었으므로 금환본위제를 채용하고 있었던 셈이다. 따라서 전후의 국제통화제도는 금환본위체제이기도 했다.

통화 불안의 연발(60년대)

금·달러본위제는, 1950년대에는 미국경제의 절대 우위를 배경으로 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1960년대로 들어서면서 달러에 불안이 발생하여, 미국은 총력을 기울여 달러 방위에 힘쓰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이 되자 파운드·마르크·프랑·엔 등에도 불안이 파급, 달러와의 사이에서 시소현상과 같은 위기가 전개되었다. 그리고 1968년 3월에는 공전(空前)의 <골드러시>가 일어나, 1971년 8월에는 마침내 금과 달러의 교환성 정지(停止)를 하게 되었으며, 이를 경계로 하여 변동시제시대(變動時勢

制時代)로 접어들게 되었다. 다음에는 주요통화에 관하여 그 실태를 개관해보겠다.

달러 불안

1960년 가을 달러에 대한 신용이 동요되어 금으로 바꾸려는 경향이 러시를 이루어, 그 결과 금의 시장 가격이 1온스당 40달러가 넘게 폭등했다. 그 원인은 미국의 국제수지가 악화되어 금과 달러의 유출이 증가하고, 그 결과 금준비고와 금태환(金兌換) 압력이 되는 단기(短期) 달러 채무잔액의 관계가 역전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정부는 사태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서둘러 달러 방위에 나섰다. 처음에는 수출축진과 무역외수지의 개선을 중심으로 했으나, 그래도 불안이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963년에는 금리평형세(金利平衡稅)를 신설하여 자본 수출의 억제를 도모했다. 그러나 그것도 효력을 보지 못하고, 그 후 베트남 전비(戰費)의 증대 등이 더해져, 사태는 호전되지 않은 채 계속 진행되어, 결국 1968년 3월의 골드러시, 1971년 8월의 금·달러태환정지로 발전했다. 그런데 달러는 전후 금과 파운드를 대신하여 국제유동성(國際流動性)으로써 공급되어 왔기 때문에, 달러 방위로 그 공급이 정지되면 세계경제는 유동성부족으로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논의(유동성딜레마론)가 일어났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달러 방위는 성공하지 못하고 달러의 유출이 계속되어, 오히려 세계적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 논의가 계기가 되어 IMF에 특별인출권(特別引出權; SDR)이 창설되었다.

그 밖의 통화 불안

파운드는 1949년 대폭적인 평가절하(平價切下; 1파운드가 4.03달러에서 2.80달러로) 후 한때 회복을 보였으나, 1956년의 수에즈동란(動亂)을 경계로 자주 위기에 빠졌다. 특히 1960년대에는 달러와 시소 관계로 위기를 반복하여, 1967년 11월에는 전후 두 번째의 평가절하(1파운드가 2.80달러에서 2.40달러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파운드 불안의 원인은 국제수지 악화와 이에 근거하는 대외준비포지션의 악화이나, 근본적으로는 영국경제의 구조적 약체화 때문이었다. 약해진 달러나 파운드와 대조적으로 강해진 대표적인 통화는 마르크와 엔이었다. 서독·일본 양국의 경제부흥 뒤의 경제성장은 눈부셨으며, 그 효과가 수출 신장으로 나타나, 국제수지는 흑자기조(黑字基調)로 바뀌고 통화를 강화시켰다. 이에 비해 프랑스의 프랑은 1960년대 전반에는 마르크와 함께 가장 안정되어 있었으나, 1968년의 5월 위기를 경계로 급속히 약해졌다. 1960년대에는 결국 강한 통화는 평가절상되고 약한 통화는 평가절하가 되었으며, 그 정도는 후반으로 감에 따라 점차 심해졌다.

1970년대 이후의 통화문제

1971년 2월의 스미소니언협정으로 고정환시세계(固定換時勢制)는 일단 재건되었으나 단명에 그치고, 1973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일어난 통화불안을 계기로 선진 주요 통화의 대부분은 변동환시세계로 옮겨갔다. 1970년대·1980년대의 통화문제에서 특기해야 할 것은 오일머니문제와 환시세의 오버슈트 또는 심한 변동일 것이다.

오일머니문제

산유개발도상국(產油開發途上國)은 국제석유자본(메이저)에 의한 과다채굴과 저가격 판매에 반발하여,

카르텔조직인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결성,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에 걸쳐 원유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을 단행했다. 세계경제는 그 영향으로 인플레이션·불황·국제수지불균형의 삼중고(三重苦)에 빠졌는데, 그 중에서도 산유국과 비산유국간의 불균형은空前(空前)의 규모(74년 OPEC의 經常收支赤字는 약 600억 달러, 80년에는 약 1150억 달러)에 달하여, 만약 이 오일머니가 OPEC에 축적된다면 몇 년 지나지 않아 국제결제시스템은 파국에 이를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아갔다. 그 긴급대책으로 내세워진 것이 오일머니의 환류(還流)였다. 우선 뉴욕·런던 등의 민간금융기관에의 예저금(預貯金), 장단기증권(長短期證券) 등에 대한 투자촉진이 도모됨과 함께, IMF·세계은행 등 국제기관을 경유하는 환류대책도 강구되었다. 환류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두 차례의 석유위기는 개발도상국의 채무를 가속적으로 누적시키는 문제를 낳았다.

환시세의 심한 변동과 오버슈트

1970년대의 변동환시세계 이행을 뒷받침한 유력한 논거는 환탄력화론(換彈力化論)이었으며, 국제불균형은 환시세의 변동에 의해 조속히 소거(消去)될 수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이후의 실적은 기대에 반하여 환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그 결과 환시세의 변동이 매우 대폭적으로 되어 세계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